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남라진 집사(양떼 목장), 허은솔, 허예솔 어린이
2. 2019년도 '후반기 세례자(입교자 포함)를 위한 양육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0월 '성도를 위한 추천도서'가 2층 예향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오빠 이관희>,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이상 3권입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0/26) 청소담당은 라오스목장(오진석 집사)이며, 다음 주일(10/27) 식사담당은 대왕참치(추성철, 추준형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은 '목장주일'입니다. 목자들은 목장모임을 꼭 가져주시고, 다음 주일 오 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6. 평남노회 제192회 가을노회가 10월 22일(화) 오전 9:30분부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참석합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예배기도(오전)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연미 권사	목장주일	김금옥 권사	정진숙 권사
주일식사담당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대왕참치 (추성철, 추준형집사)	눔바목장 (유숙정 권사)	험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우즈베크목장 (10/19)	라오스목장 (10/26)	네팔목장 (11/2)	몽골목장 (11/9)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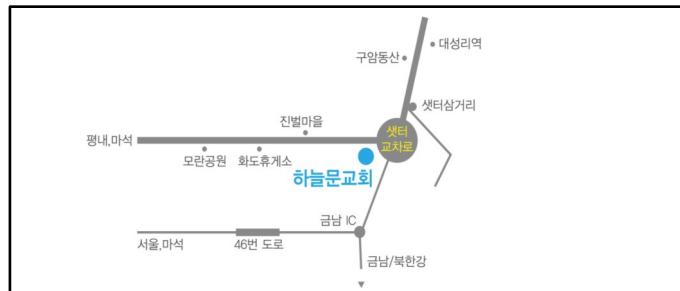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성시교독 ..... 교독문 75번(마 6:31-33) ..... 다 갈 이  
 \*경배찬송 ..... 36장(통 36장) ..... 다 갈 이  
 \*참회기도 ..... 다 갈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 301장 (통 460장) ..... 다 갈 이  
 대표 기도 ..... 유중열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막 9:33-37 .....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 도 자  
 말씀선포 ..... '거룩한 목심'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다 갈 이  
 \*결단송 ..... '주님 말씀하시면' ..... 다 갈 이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  
 송할지이다

시편 33장 2절

오후 1:30

인도 : 김묘상 목사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 아도나이 찬양팀 ..... 다 갈 이  
 묵상기도 ..... 은혜를 구하며 ..... 다 갈 이  
 찬 송 ..... 310장(통 410장) ..... 다 갈 이  
 기도 ..... 이연미 권사  
 특별찬양 ..... 누구든지  
 성경봉독 ..... 고후 1:3-7 ..... 인 도 자  
 말씀선포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김묘상 목사  
 기도 .....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 인 도 자  
 찬 송 ..... 356장(통 396장) ..... 다 갈 이  
 축 도 ..... 김묘상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 허영진 목사  
 요 21:1-14 '다시 일어설 때'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02)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후 말씀묵상 .....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가을 단상

어느 날 부턴가 길 건너편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깬다. 한  
 동안 보이지 않던 개들인데 그 집 주인이 새로 데려왔나 보다. 낮  
 선 장소로 옮겨와서인지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짖어 된다. 시계를  
 보면 대략 4시 정도. 덕분에 5시에 맞춰 놓은 알람시계가 무색하게  
 기상이 한 시간 빨라졌다. 쌀쌀해진 날씨 탓도 있겠지만 피곤한 몸  
 을 이끌고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려면 빼앗겨버린 한 시간의 단잠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잠을  
 설치게 하는 개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도시의 차량 소음을 무찌르는  
 그 시원한 울음소리가 정겹기만 하다. 슬그머니 웃음까지 난다.

가까이에 북한강을 끼고 세 갈래로 갈라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인지 요즘은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러 나온 이들로 넘쳐 난  
 다.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이어지는 산이 감싸 안은 마을인지라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고층 아파트 단지와는 사뭇 다  
 른 풍경이 펼쳐진다. 초여름에 창문을 열면 아카시아 나무 꽃향기  
 가 짙게 배어 온 교회 안까지 퍼지고, 겨울 창밖은 키 큰 소나무에  
 쌓인 눈 풍경이 꽤나 근사하다. 요즘은 어떤가. 한참이나 비워져  
 있던 교회 옆 공터는 누가 애써 가꾸어 놓았는지 큼직한 고추가  
 붉게 익어가고, 누렇게 여문 호박도 더러 눈에 들어온다. 교인들이  
 가끔 집집마다 가꾼 호박 같은 채소를 가져다주면 된장찌개에 넣  
 어 끓여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지 싶다.

운동주의 시 '아우의 인상화'에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냐고 묻는  
 형과 사람이 되겠다고 대답하는 동생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미 사  
 람이지만,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유지해 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  
 운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요즘 들어 가끔 세상이 너무 무서운 일들  
 만 일어나는, 인간적이지 못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럼에  
 도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때로는  
 아주 귀찮고 때로는 너무 버거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곳이란 결국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은 지금 자신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을은 우리 곁에 어  
 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Written by 허영진